

콩트초대



아침에 출근할 때 보니 앞마당 꽃밭이 어딘지 모르게 성기고 흰한 느낌이 들었다.

“꽃밭이 이상하네요. 무어가 빠진 거 같애”

고개를 가우뚱 기울이는 숙미 말에 대문턱까지 배웅하며 뒤따르던 올케언니는

“어제 어머님께서 봉숭아, 분꽃 따위 여름꽃을 모두 뽑아버리셨거든요” 하고 알려 준다.

“아, 그렇구나, 어쩐지!”

숙미는 그제서야 앞마당에 빼곡하니 배었던 꽃밭이 무언지 모르게 행해진 느낌이던 연유를 알고는 왠지 조금은 서운하다.

“어머니두, 뭘 어느새 다 뽑아버리셨수? 아직도 한참은 더 볼 수 있겠던데, 서운하다”

숙미는 대청마루에서 출근하는 젊잖은 딸의 뒷모습을 눈으로 쫓고 있는 백발의 어머니를 돌아보며 말했다.

“서운하긴, 칠 지난 늙은 꽃이 무얼 볼게 더 있다고, 꽃이고 사람이고 그저그저 철따라 가야 하느니라”

올해 설혼아홉인 막내딸을 빗대놓고 하는 노모의 말에 숙미와 올케는 서로 얼굴을 마주 보고 쓴웃음 짓는다.

“엄만 저재미로 사시니까 뭐, 저러시다 내가 진짜 시집이라도 가 버리면 어찌시려구?”

“얕던 이가 빠지는 거지 어찌기는 뭘 어찌. 아이구 내 언제 내년 등 쳐다보며 아침마다 이렇지 않는 날이 올지 모르겠구나. 그래야만 내가 눈을 감아도 감을텐데...”

귀가 어둡다면서도 필요한 말은 모조리 알아듣고 대청에서 노모는 또다시 한탄이다.

“이젠 어지간히 체념할 때도 됐을텐데 어쩜 엄만 내리 10년을 하루갈



具 擘 瑛

강원도 춘천에서 태어남.
1955년 淑明女大를 졸업하고 《思想界》誌를 통해 문단에 나옴.

현재: 한국문협이사, 한국여류문학인회부회장, 한국소설가협회감사,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 등.

저서: 銀빛갈의 작은 새, 안개의肖像, 칸나의 뜰, 진아의恋人, 세월의江流소리들 20 여편.

이 저러는 거야. 남이 출근할 때마다…”

숙미는 목소리를 푹 낮춰 가지고 노모의 흉을 본다.

“오죽 사위님이 보시고 싶으시면 그러시겠어요. 아가씨도 올가을은 절대로 넘기셔선 안돼요”

올케언니가 진지하게 말한다.

“언니두 내가 이집에 더 있는 게 싫죠?”

숙미는 올케의 진심을 알면서도 괜히 심술궂게 그래 보고 싶다.

“참 아가씨도!”

올케는 침에는 눈동자를 똑바로 뜨다가 감실감실한 시누이의 눈웃음을 읽고는 “그래요. 그렇구 말구요! 나도 한시가 바쁘다우. 노쳐너 내몰고 싶잖은 올케도 있던가요”

그녀는 애교스레 하얗게 눈을 흘긴다.

빵! 빵!

밖에 미리 나가 기다리던 오빠가 함께 출근하는 누이동생을 재촉하는 클락슨 소리가 요란스레 울린다.

“흥? 모두가 한통속이로군요!. 모두가 날 내몰지 못해 안달을 하고 있어!”

입으로는 그러면서도 숙미의 말속에는 꼬부라진 가시가 섞여 있지 않다. 이번만은 무언지 자신이 있었다.

“좋아요! 그렇게까지 모두 원하신다면 나가 드리죠!”

“정말이지요?”

올케언니 눈속이 환하게 불켜지고

“그게 언제쯤이나?”

노모도 대청에서 뒤질세라 다그친다.

“글쎄요”

숙미는 잠시 생각하는 자세로 눈앞에 무성한 꽃밭에다 눈길을 준다.

코스모스는 하나 둘씩 꽃잎을 터뜨렸고 사르비아도 피었다. 과꽃에는 몽울몽울 꽃망울이 한창이다.

“과꽃 필 무렵……?”

중얼대는 숙미의 말위에 오빠가 놀리대는 클락슨 소리가 겹친다. 그소리에 눌러서 숙미의 말소리는 대청마루에 서 있는 노모에게는 커녕 마주 보고 서 있는 올케 귀에도 미쳐 들리지 않는다.

빵! 빵! “나가요! 다녀 오겠습니다!”

숙미는 활달하게 꽃밭 앞을 떠난다.

“그래 너 요즘 데이트는 제대로 돼가냐?”

핸들을 돌리며 오빠가 숙미에게 묻는다. 남매의 직장이 눈과 코 사이라서 숙미는 아침마다 오빠 차에 편승하게 마련이다.

윤교수를 숙미에게 소개한 사람은 오빠의 고교선배인 K박사다.

“국민학교 4년과 1년짜리 두 남매를 둔 착실한 흠애비지. 부인이 바람만 피우지 않았어도 이혼같은 거 언감생심 생각도 못할 사람이고, 이혼 3년에 뜬소문 한번 외박 한번 없는 모범적 아빠고 가장이야. 요즘 세상에 그런사람 드물어요. 그래서 비록 재취자리나마 내가 장담하며 오상무자네 매씨에게 권하는 혼처니 그리 알으쇼”

K박사는 숙미 오빠인 오상무에게 우선 양해부터 구해놓고 숙미를 윤교수에게 소개했던 것이다.

숙미는 20대 젊은 시절에는 신문기자 였다. 그때 K박사는 숙미의 직접 상사인 문화부장이었다.

숙미가, 자기가 아기는 후배의 누이동생임을 알고부터는, 당시는 부장이던 K박사는 기회 있을 때마다 발벗고 숙미의 결혼 중신에 나섰다.

그때만 해도 여기자는 미혼이랴야 하고 결혼을 함과 동시에 사직을 해야 했다.

“신문사에 그대로 있어 봤자, 미소오는 어차피 진급도 못할 텐데 그럴바엔 한참 물 좋을 때 평생 직장인 시집을 가는 게 장땡이지. 아 오죽 좋아. 한평생 편하게 얻어 먹을 수 있는 직장인 시집 말야!”

악의없는 독설가인 K부장에게 그때만해도 그저 팽팽하여 뻣뻣하기만 하던 숙미는 적지 않은 반발을 느낄 때가 많았다.

“이이 참, 한참 물 좋을 때라구요?”

제가 무슨 생선인가요?

“암 그럼 생선이지. 아침과 낮과 저녁 때 값이 생판 다른 생선이구말구. 그이상도 그이하도 아닌 게 여자야. 알겠어? 그러니 내 말대로 해요. 시집을 가라구!”

“피이!”

“피이라니. 괜히 내말 듣지 않고 콧대만 세우다간 곧 낮생선 되고 저녁 생선 되고 말야. 그때 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리요!”

그러면서 K부장은 물리지도

않는지 청년들을 자주 소개시켜 주었다.

K부장에 대한 반발도 곁들여 숙미는 그들과 대체로 좋은 친구는 되었을 망정 그중의 누구하고도 결혼을 생각해 보지 않았다.

인연이 닿지 않아서 일까?

글쎄, 그럴 것도 같고 그렇지만도 않을 듯 싶은 게 숙미의 솔직한 심정이다.

그중의 몇몇 남자하고는 제법 분홍빛 감도는 우정도 나눈 적도 있는데 그때에도 그 감정이 연정이나 염문으로 발전되지 않았던 건 아무래도 숙미쪽의 인위적 작위(作爲)인듯 싶기 때문이다.

숙미는 일을 좋아했다.

여자들끼리 배운 대학을 졸업하자 남자들과 실력을 겨루어 목적이던 신문사 공개시험에 합격했을 때의 자랑스러운 성취감.

그후 남성들과 책상을 맞대고 그들과 더불어 뛰면서 숙미는 결코 그들에게 열등감을 가진 적이 없다.

때로는 앞서고 때로는 뒤지기도 하면서 기쁨을 가지고 유능한 일꾼이고자 뛰었고 또 손색없는 일꾼으로 말은 바 책무를 다 했다.

그렇지만 K 부장의 예언 그대로 숙미는 보상에 있어서 남성동료들의 맨 끝자리에 서 있곤 하는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아연해지고 분연해짐을 이질수가 없었다.

서른 살까지 다니던 신문사를 박차고 나와 현재의 직장으로 자리를 옮겼으나 사정은 그다지 다를 바 없었다.

숙미가 몇 번인가 스스로도 아깝고 탐나기까지한 흔적을 물홀리듯 흘려보낸 것도 구태여 따지자면 그녀가 직장생활에서 얻고자 원했던 성취감의 완성보다는 비중이 약했던 탓이리라.

“오빠두 내가 집에서 나가는 게 좋으시죠?”

“데이트를 묻는데 똥딴지 같이... 솔직한 애기가 난 네 나이가 벌써 그렇게 된 줄도 모르고 있었다. 식구도 단출한데 너 하나 더 있다고 나한테는 아무런 지장도 없어. 하지만 남녀간에 어디 그러냐. 독신주의자가 아닌 비에는... 너 혹시 독신주의자는 아니지? 그렇다면 별문제다만...”

“오빠두, 제가 그렇더라면 진작 따로 나와 독립했지요. 엄마가 시집 갈 처너는 절대로 아파트 같은데 따로 나가 살아선 안된다고 잡아서...”

“하하하. 알았다. 그말을 들으니 오빠도 안심이다. 그런 소리까지 술술 나오는 걸 보니 윤교수하고는 기대를 걸어도 될 모양이지?”

“가능하면 올가을을 안 넘기고 싶어요, 저두.”

“왜, 서른 아홉이라서? 그렇게 부담 갖진 말거라. 돼가는 대로 자연스레 해야지. 이젠 너도 큰회사 부장급 중견간부고 그 나이에 결혼해서 새삼 아일 낳을 것도 아닌데 말야”

“왜요, 제가 결혼하고 싶다면 첫째 목적이 그건데요, 아끼...”

숙미는 여태까지 품어오던 가장 요긴한 비밀을 그만 털어놓은 셈이었다.

아기, 라고 생각만 해도 숙미는 얼굴이 달아오르고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다.

꿈에도 잊지 못한 고것을 꼭 한번 품에 안아 보리라, 고 숙미는 단단히 별렀다.

오늘은 꼭 윤교수의 청혼에 O·K를 말하리라.

“글쎄다. 네 나이에 그게 잘 될지.

어쨌건 잘해 보거라.”

차에서 내려서 좌우로 갈라질 때 오상무는 누이동생에게 부추기듯 말한다.

아침 간부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홍보부장 오숙미의 얼굴에는 보일 듯 말듯 낭패의 그늘이 서려 있다.

오늘따라 윤교수를 꼭 만나야 하겠는데 신입사원 환영회를 하라는 것이다.

오늘 밖에는 환영회 날짜가 마땅치가 않다는 총무부장의 설명이고 보니 그쪽에서 주관하는 회사 행사를 개인사정 때문에 마다할 수도 없다.

할 수 없지. 약속 시간을 늦추자고 전화를 걸자.

숙미 쪽도 왜 오늘은 기필코 윤교수를 만나야 하시고 하면 내일이면 그는 김포로 떠나기 때문이다.

파리에서 열리는 학술회의에 참석했다가 기왕 나간 김에 북구 몇나라를 돌고 온다니 그러면 앞으로 한 달 가까이 못만나게 된다.

숙미는 그가 떠나기 전에 갑자기 결혼 문제를 마무리 짓고 싶었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떠날 때는 떠나야 하는 것인데 나는 떠날 때를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오늘따라 그녀 등을 밀어댄다.

숙미는 그의 학교에 전화를 걸었다. 조교가 받으며 교수님은 강의중이시란다.

“전화가 오면 말씀을 메모해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조교가 그렇게까지 말하니 숙미도 용건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약속하신 시간을 몇시로 늦추실 건가를 알려 주셨으면, 하시는 말씀이군요”

빈틈없는 조교에게서 숙미에게 다시 전화가 걸려온 건 그로부터 정확히 30분 후였다.

“교수님께서서는 저녁 시간 내내 맥에 계시답니다. 환영회가 끝나시는 대로 맥으로 연락하시면 되시겠다 하십니다”

전화를 받고 난 숙미는 무언지 미진하다. 왜 윤교수 자신이 직접 전화를 걸어주지 않는 것일까.

저녁 때가 되어 숙미는 신입사원 환영회에 참석했다. 신입사원 중 숙미네 부서에 배정된 여사원은 주부였다. 이제는 세상이 변해 결혼한 여자도 직장에서 선선히 받아주게 되었으니 경축할 일이라고 숙미는 부장으로 인사하며 감개가 무량했다.

나도 결혼을 하고도 이자리를 지키리라. 나의 청춘과 맞바꾼 이 자리를. 그런데 행복한 주부사원인줄만 알았던 신입사원은 입사를 자축하는 노래 순서가 돌아오자

“올해도 과꽃이 피었습니다.

꽃밭 가득 예쁘게 피었습니다.”

하고는 그만 울음을 와악, 하고 터뜨린데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환영회의 열기는 이상하게 교착된 채 식어버렸다.

환영회는 예정보다 일찍 끝나게 되었다. 숙미는 과꽃노래를 부르다 울음을 터뜨린 신입사원을 데리고 근처 다방으로 갔다. 보기와는 다르게 수심으로 가득찬 그 부하사원을 위로하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부장님. 전에 아이들과 자주 부르던 노래를 부르다보니 그만……”

알고 보니 그녀는 성격 차이로 시집을 뛰쳐나온 이혼녀였다.

“유능한 학자인 남편은 자기하고 아이밖에 몰라요. 여자는 그야말로 자기하고 아이들만 뒷바라지 하면 되는 노예나 로봇으로 알아요. 참을 수 없었어요.”

호느껴 우는 여자를 달래주고 헤어져 윤교수네 집으로 전화를 걸었다.

“아, 숙미씨, 환영회 끝났습니까. 비교적 빨리 끝났구먼요. 재미 있었소?”

“저, 지금 당장 좀 뵈고 싶어요”

“그래요? 글썽—, 그러기엔 좀 늦은 거 같잖소? 내일은 비행기도 타야 하고…, 오늘 저녁때 애들 데리고 우리집 꽃밭 좀 손질했더니 피곤한데요. 과꽃이 한창이죠, 우리 꽃밭은. 어때요, 다녀와서 만나면……”

숙미는 맥없이 수화기를 놓는다.

눈앞에 아침에 본 과꽃 봉오리가 하루살이때처럼 눈앞을 어지럽힌다.

그의 집 꽃밭에는 지금 과꽃이 한창이라니 우리집 거보다 빨리 심은 모양이지.

과꽃이 필 때 집을 떠나기로 했으니 올가을은 그때를 놓쳐서는 안되지.

숙미는 아무도 모르게 사서 전세를 준 작은 아파트로 올가을은 결단코 분가를 하자며 밤길위에 서 있다.

눈앞에 아침에 본 과꽃 봉오리가 하루살이 때처럼 눈앞을 어지럽힌다.

그의 집 꽃밭에는 지금 과꽃이 한창이라니 우리 집 거보다 빨리 심은 모양이지.

과꽃이 필 때 집을 떠나기로 했으니 올가을은 그때를 놓쳐서는 안되지.

